

# BMW 헤리티지 담은 디자인에 역동적 드라이빙 '반전 매력'



## BMW '뉴 4 시리즈 쿠페'

수직형 키드니 그릴 새롭게 적용  
4시리즈 최초 고성능 M퍼포먼스  
낮은 rpm 영역부터 시원한 가속력

“기대했던 것보다 디자인·주행성능 매력적.”

완성차 브랜드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호불호가 갈린다. 최근에는 BMW가 새롭게 선보인 뉴 4시리즈는 수직형 키드니 그릴을 적용해 공개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그릴은 BMW의 헤리티지를 담아 디자인됐다. BMW의 전설적인 쿠페 모델들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수직형 키드니 그릴이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본 뉴 4시리즈의 전면은 앞범퍼 하단까지 길게 확장된 그릴과 메



수직형 키드니 그릴을 적용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BMW 뉴 4시리즈

시 타입 공기흡입구, 날렵한 헤드라이트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측면은 길고 넓은 차체와 짧은 오버행을 통해 역동적 비율을 완성했다. 넓고 뚜렷한 표면과 풀 LED 리어라이트가 조합된 후면은 강력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한층 커졌다. 길이 4770mm, 폭 1845mm, 휠베이스 2850mm로 이전보다 각각 130mm와 27mm, 41mm 늘어나 실내공간이 한층 여유로워졌다. 높이는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

지가 1385mm, 뉴 M440i xDrive는 1395mm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실내는 고품질 소재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스포츠 모델에 걸맞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또 스포츠 시트와 M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계기판과 도어 패널 트림, 높게 자리 잡은 센터콘솔 등이 앞좌석 승객에게 감싸 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한다.

주행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4시리즈 최초로 고성능 M퍼포먼스를 적용한



BMW 뉴 4시리즈의 실내 인테리어는 스포츠 쿠페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뉴 M440i xDrive 쿠페를 타고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BMW 드라이빙 센터를 출발해 왕산마리나를 왕복 주행하는 약 50km에서 진행했다. 도심과 고속 주행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뉴 M440i xDrive 쿠페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m를 뽐내며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으며,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만에 가속한다.

덕분에 BMW 특유의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면 힘차고도 부드러운 몸놀림이 상당하다.

또 전반적인 주행성능은 날카로운 역동성과 최상의 핸들링으로 여유로움까지 느껴진다. 낮은 rpm 영역부터 시원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고속주행 시에는 높은 rpm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거침없는 주행을 이어갔다. 특히 와인딩 구간에서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며 차체의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부담없이 '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주차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한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에서는 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최대 50m 거리까지 차량의 후진 조향을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도 매력적이다. 시승한 모델인 M440i xDrive 쿠페는 8190만원이며, 420i M스포츠 패키지는 59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조현식 대표 사임... “경영권 논란 책임”

(한국엔컴퍼니)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신청으로 분쟁  
이한상 교수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안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송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조현식 대표(사진)가 24일 최근 불거진 한국타이어(家)의 경영권 분쟁 논란에 책임지고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버지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한국엔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서한을 공



개하고, 이 교수의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대표는 주주서한에서 “최근까지 우리 회사가 여러 이유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본의든 아니든 창업주 후손이자 회사의 대주주들이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중 한 명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를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임하고

자 한다”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로써 경영권 분쟁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교수의 이사 선임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지난 5일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조대표가 추천한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기업가치의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초빙돼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 조언한 바 있으며, 국내 유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를 C등급에서 2년 연속 A등급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 방통위, 크리에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불리한 내용 계약 등 차단

“MCN 회사들이 처음 구두로 계약을 한 후 나중에 계약서를 보면 정확한 표기가 없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다 계약해지도 비밀비재하구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 크리에이터 간 계약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계약강요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가 최근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고 수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도 빈번해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김나인 기자

## 네이버

###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 출시

네이버(가) 웹 브라우저 ‘웨일’ 전용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을 정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베타서비스를 거쳐 정식 출시된 웨일온은 세계 최초로 브라우저에 직접 탑재된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웨일의 툴바에서 바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타 화상회의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유료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회의 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모바일과 PC환경 모두에서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LGU+, 인천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수집  
비용 절약·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LG유플러스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주한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수주, 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24일 서울 용산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산업 단지의 혁신성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다. 정부는 남동·구미·광주·여수 등 7개 거점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할 방침

이다.

LG유플러스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담당한다. 그 첫 단계로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CEMS)’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CEMS는 입주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공장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입주 기업은 서버 등 별도의 물리적인 IT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입주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비용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입주 기업의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저장·정제·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차 벤다이어친 영입... UAM 경쟁력 강화

기체 개발·선행 연구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문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벤다이어친(사진)’을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벤다이어친 최고기술책임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회사인 오픈에서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혁신적인 항공기와 우주선을 개발 및 제조하는 ‘스케일드 콤포지트’에서 최고경영자 및 고위 기술직을 역임했다.

벤다이어친 최고기술책임자는 약 20여년간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인재로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쉽원과 개인용 전기 항공기인 블랙플라이 등 16대의 획기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